

잡아함 38 비하경

날짜: 12월 14th, 2023

출처: <http://www.dhamma.kr/wp/?p=1761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撻茨)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우[鉢]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匕匕羅)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류(遮留)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毘悉多)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婆闍那)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뢰(薩牢)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와 같이 비구들아, 세간에 있는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들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나타내 보인다. 알고 보아 말하지만 세간의 저 눈먼 장님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저 세간의 눈먼 장님들이 알지도 못

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

비구들아, 어떤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내지)……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이른바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는 것,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다. ‘수 · 상 · 행 ·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는 것,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니라.

비구들아, 이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아……(내지)……저 눈먼 장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